

# 의술 불신이 준 외국 치료여행

최영태/조선일보 생활과학부기자

최근 한 여행사가 소련의 안과병원으로 눈수술을 받으러 갈 관광객을 모집하겠다고 나서 의료계와 관광업계에 화제가 되고 있다. 소련의 미코프 병원이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수술인 방사상 각막절개술(放射狀 角膜切開術)을 시술받으면 안경을 쓰고 병원에 들어갔다 맨눈으로 퇴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모에 신경을 써야 하는 젊은 여성들에게는 솔깃한 소리가 아닐 수 없는지 여행사나 신문에 문의전화가 줄을 잇는다. 무거운 안경, 귀찮은 콘택트렌즈를 벗어던질 수 있고 안경 쓴 여자를 안 좋게 보는 일부 남성과 기성세대들의 시선으로부터는 해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련 눈수술 여행」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예약자가 20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에 국내 안과의사들은 「한심하다」는 표정을 감추지 않는다. 방사상 각막절개술은 이미 국내 여러 병원에 도입돼 1천명 이상 치료성적으로 발표한 병원도 있는 마당에 소련이라는 먼 나라로, 의료사고에 대한 대책도 없는 사회주의 나라에 가서 수술을 받겠다는 사람이 줄을 잇는 것은 아무래도 비정상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소련 눈수술 여행

문의하고 신청하는 사람들은 국내에서 동일한 수술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방사상 각막절개술에 대한 기사는 신문, 방송을 통해 수도 없이 보도됐으므로 수술을 통해 안경을 벗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한번 정도는 신문보도를 봤을 법도 하다는 반론도 있다.

어쨌든 국내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건 몰랐건 외국 의료기관에 대한 맹목적 신뢰를 다시 한번 보는 것 같아 뒷맛이 개운치 못하다. 일부 한국인들의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도를 생각할 때 앞으로 이런 식의 해외 치료여행이 보편화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으며, 실제 고관이나 부유층 인사중 국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인의 외국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높은 편으로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 의료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하다못해 「필리핀의 심령술사가 맨손으로 암을 끄집어낸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사실 여부 확인은 제쳐둔 채 필리핀을 가지 못해 안달을 떠는 것이 한국인이다.

소련에는 일회용 주사기가 거의 없다든가, 콘돔이 부족해 에이즈 전파 위험이 높다든가 하는 토픽이 신문지상에 가끔 보도되지만 「소련 최고 수준의 국립 안과병원에서 최고 권위자인 표도로프 박사가 직접 눈수술을 해준다」고 하면 한국인들은 마음부터 급해지기 시작한다.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으로 치료여행

**일부 한국인들의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도를 생각할 때 앞으로 이런 식의 해외 치료여행이 보편화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으며, 실제 고관이나 부유층인사중 국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을 나서는 사람들의 이유는 다양하다. 「국내 의료기관은 믿을 수가 없어서」, 「병원을 출입한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안되므로」, 「미국 국적을 얻으려면 미국 땅에서 아이를 낳아야 하므로」 등등.

이러한 국민들의 「의료사대주의」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무책임한 행동이 우선 그 첫번째 원인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병원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몸을 우리의 병원에 맡기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으니 말이다.

환자가 돈으로 보이고 모든 것은 돈이면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병도 있다고 속이는 의사들이 대다수는 아니겠지만 있는 것은 분명하며 이러한 의사를 한번이라도 경험한 사람들은 「의사놈들」이라는 말을 되짚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대학병원 등 쟁쟁한 병원에 근무하는 교수급 의사들 중에는 자신이나 가족에 병이 생기면 큰 돈을 들여서라도 미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한 의과대학 교수는 사석에서 「솔직히 말해 우리 종합병원에 내 몸을 맡길만큼 나는

용감하지 못하다」며 자조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외국에서 장기간 의사생활을 하다 귀국한 이 의대 교수는 「가끔 정부 고관이나 부유층 인사들이 「이런 병에는 미국의 어떤 병원이 좋으나」고 물어와 소개장을 써줄 때도 있지만 어쨌든 한국의 의료계는 뭔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털어놓는다.

일본 유학경험이 있는 한 성형외과 개업의는 일본 연수중 한국인 주부들을 접한 경험이 적지 않다고 한다. 통역까지 대동한 채 얼굴을 이렇게 저렇게 고쳐달라고 열심히 말하다가도 「실은 저도 한국인입니다」라고 말하면 소스라치게 놀리는 여성들이 많았다는 것.

최근 서울 강남 지역의 가정주부들이 계까지 만들어 떼지어 일본으로 나가 성형수술을 받는다는 소문에 대해 이 성형외과 의사는 「일본의 성형외과 기술이 일부 분야에서 우리보다 앞선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수술을 굳이 외국에 나가서 하려는 대도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다」고 털어놓는다.

의사들은 의사들대로 「하루 1백명이 넘는 환자를 보지 않으면 체산을 맞출 수 없을 정도로 박한 의료수가 제도하에서 어떻게 우리가 충분히 정성들인 진료할 수 있겠느냐」고 정부를 성토했고, 정부는 정부대로 「아직도 의사들은 고소득자이며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돈벌이에 열중인 의사도 많다」고 불신하는 가운데 의료제도의 낙후성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나 불편은 국민들이 다 뒤집어 쓰고 있으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